

글로벌 물류 현지시장 동향

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총괄 김동환 감수 이연경 자료 문의 051-797-4770 Email: kdong@kmi.re.kr

관세 불확실성 국면에서 본 미국 물류시장 동향

Contents

- 01 시장 수요 부문의 변화
- 02 고용 부문의 변화
- 03 소비심리 및 지출 부문의 변화
- 04 마무리

「글로벌 물류 현지시장 동향」은 우리나라 국제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로 월 2회 발간하는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의 정기 간행물입니다.

매호 글로벌 물류시장 각 지역·국가별 화주·물류 기업 진출 현황, 투자 전망 등 현지 물류시장 정보와 주요 이슈, 정책지원 건의사항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직접 수집·제공하오니 의사결정 및 실무, 정책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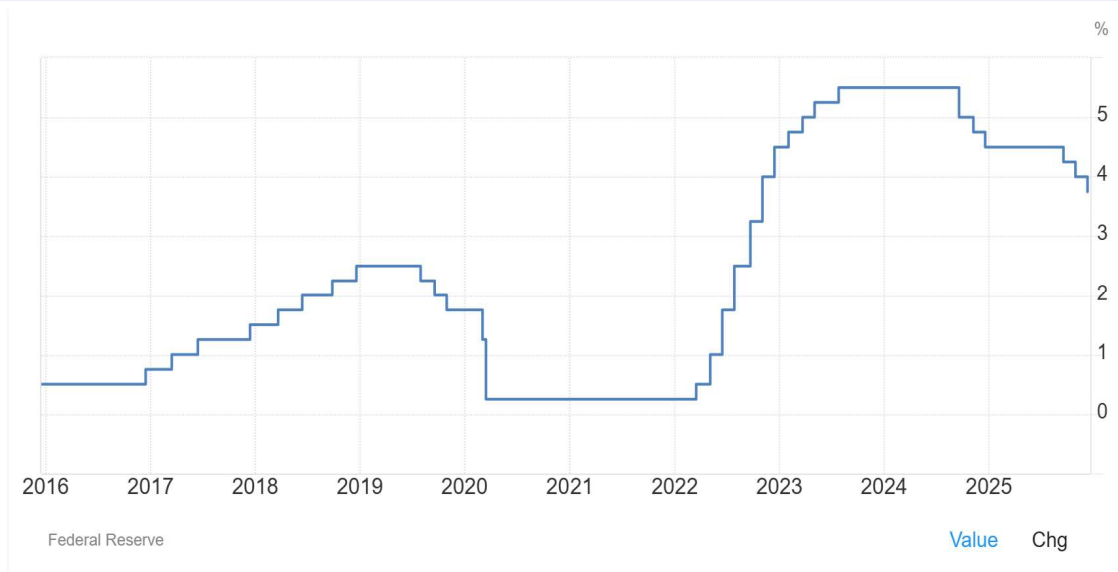
관세 불확실성 국면에서 본 미국 물류시장 동향

New Jersey City Univ.
Management Dept

이은수 교수

찜질방에서 열탕과 냉탕을 몇 번 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온도차가 별로 안 느껴진다. 요즘 시장도 딱 그렇다. 환경·관세·전쟁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공급과 수요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열까, 말까”를 반복한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inflation),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 고용시장(job market)까지,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이 어느새 “그런가 보다” 하고 익숙해진다. 그리고 결국… 지갑은 열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12월 10일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0.25%p 인하하여 3.50~3.75%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그림 1 참조). 이번 금리 인하는 9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인하 조치로, 2025년 들어 고용 증가세 둔화(실업률 4.3% → 4.4%), 연초 대비 소폭 상승한 인플레이션(2.9% → 3.0%), 외화 보유액 감소(39,205 백만 달러 → 38,314 백만 달러) 등 주요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준은 이번 정책 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025).

■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기금이자율 (2016~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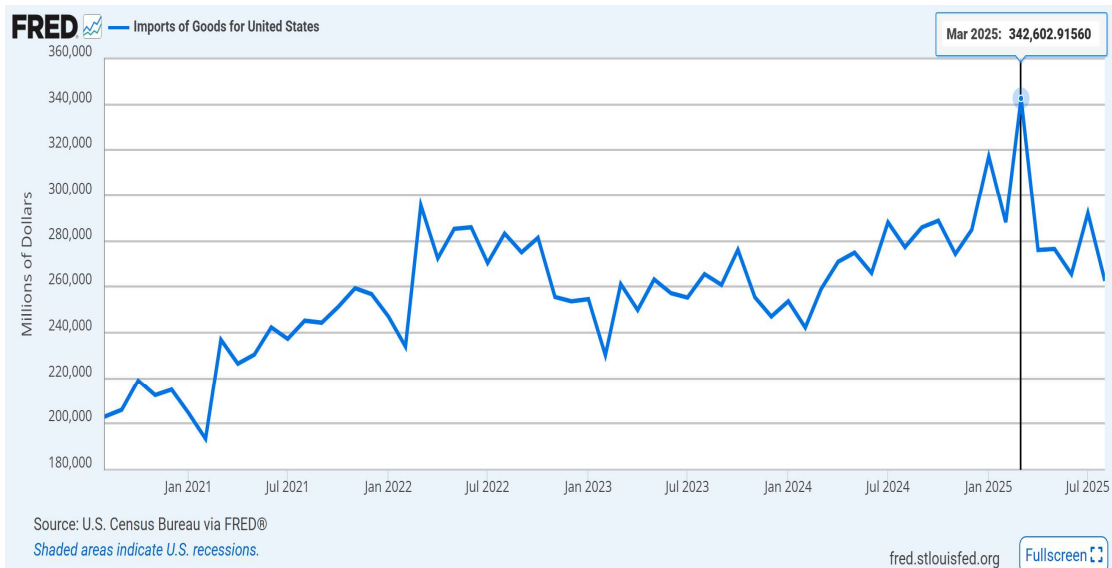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검색일: 2025. 12. 03)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의 방향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다시금 “선적을 미리(Front-loading) 진행할 것인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대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전략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관세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전에 물량을 선적할 경우,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정책이 반복될 경우, 잉여 재고 누적, 고운임 부담, 운전자금 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조기 선적으로 인해 불필요한 생산비 및 물류비용이 확대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환경 속에서 미국 수입업체와 해외 수출 업체들은 다양한 품목에 고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미래 비용 상승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출고(Front-loading)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화물 물량이 2025년 3월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그림 2 참조). 즉, 관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물량은 이미 “선결제”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에 반영된 셈이다.

■ 美 화물 수입 현황 (2021~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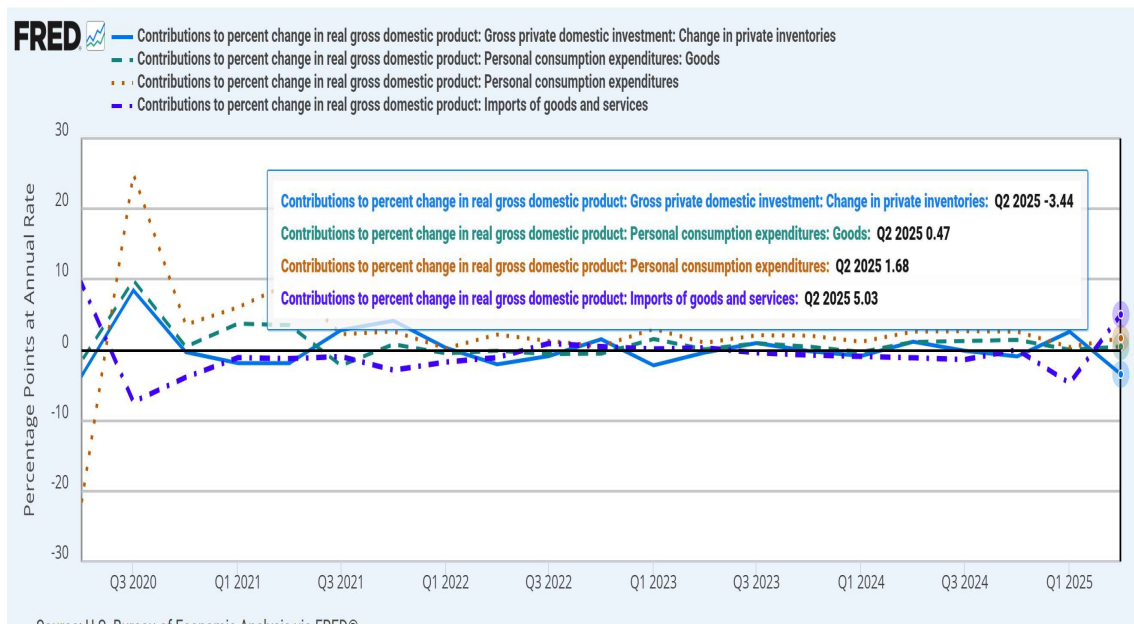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검색일: 2025. 12. 03)

관세 사전 출고(Tariff front-loading)는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물량을 앞당겨 선적하는 전략이지만, 비용 부담은 이후 한꺼번에 현실화되는 전형적인 단기 대응 전술로 평가된다. 단기간에 무역 물동량과 재고가 급증하면서 항만 및 내륙 운송 인프라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스팟 운임이 급등하며, 기업들은 안전재고(Safety stock)를 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재고(Just-in-case inventory)를 과도하게 축적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 과정은 거시경제 지표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2025년 1분기에는 관세 사전 출고에 따른 수입(Imports) 급증이 GDP 산정 과정에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0.6%(연율, 수정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2분기에는 앞서 축적된



재고의 영향으로 신규 수입이 둔화되면서 감산 요인이 축소되었고, 소비 증가가 더해지며 실질 GDP 성장률이 +3.8%로 반등하였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이러한 성장률 회복의 배경으로 수입 감소와 민간 소비 증가를 함께 지목하고 있다(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5).

■ 제품과 서비스 수입이 美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검색일: 2025. 1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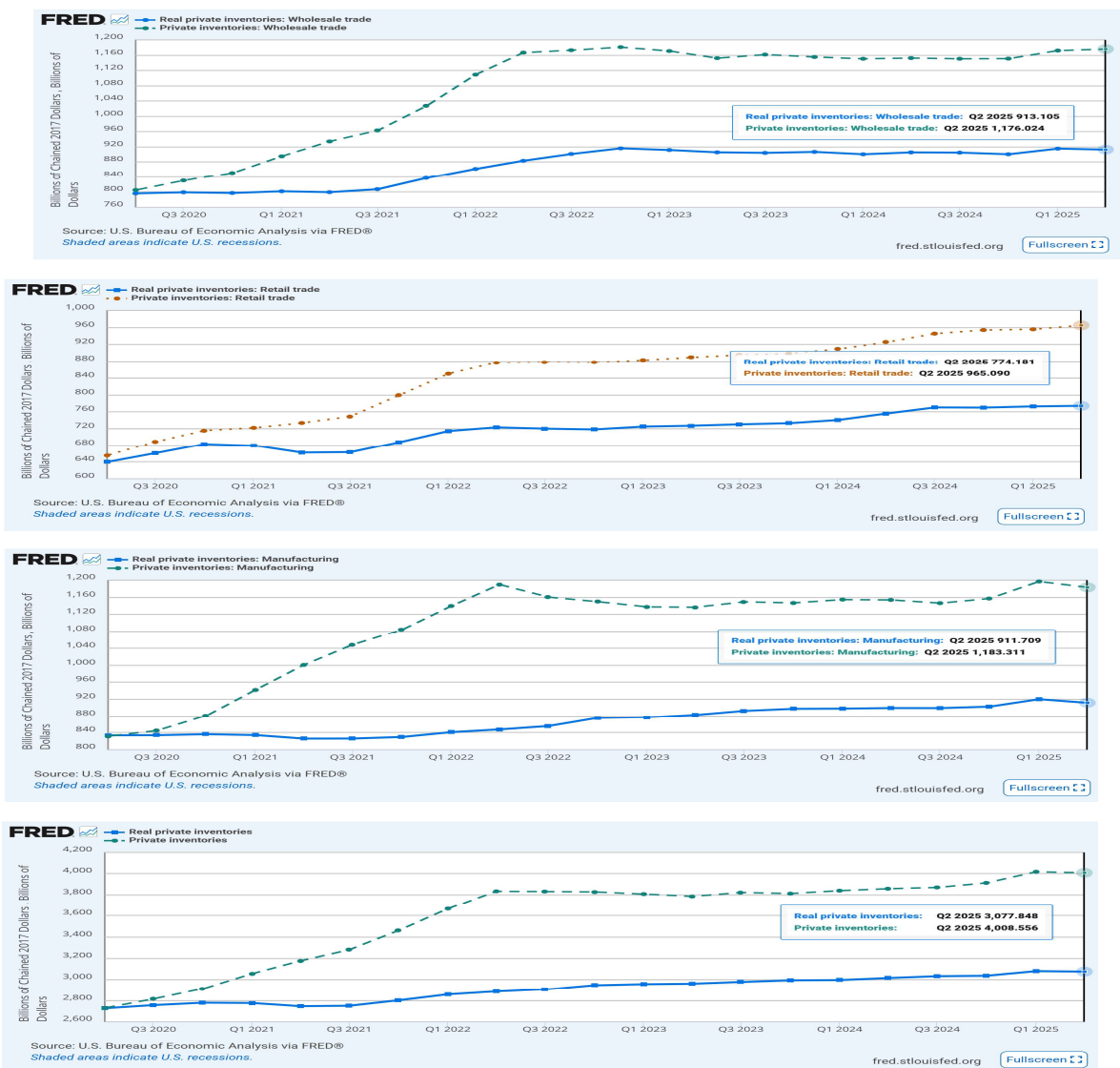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국민소득·생산계정(NIPA)에서 재고를 “수준(level)”과 “변화(change)”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민간 재고자산(Private inventories)은 미국 내 민간기업이 보유한 재고의 절대 수준을 의미하며, 원재료 및 자재(materials & supplies), 공정재고(work in process), 완제품(finished goods), 재판매용 상품(goods held for resale)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지표는 명목 가격(current dollars)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재고의 금액적 가치를 나타낸다.

반면 실질 민간 재고자산(Real private inventories)은 2017년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제거한 체인형 달러(chained dollars)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고의 물량적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된다(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5). 특히 GDP 구성요소로 직접 반영되는 항목은 재고의 수준 자체가 아니라 ‘민간 재고의 변화(Change in private inventories)’로, 이는 재고의 실질 증가분을 가치로 환산한 일종의 ‘재고 투자(inventory investment)’ 개념이다. 해당 항목은 분기별 GDP의 단기 변동성을 크게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국민소득·생산계정(NIPA)에서 정의한 명목 민간 재고자산 (Private inventories)의 수준(level)과 실질 민간 재고자산(Real private inventories)의 수준을 평가한다. 민간 재고자산은 미국 내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 유틸리티, 농업 등 모든 산업 부문에 속한 민간기업이 보유한 재고를 의미하며, 원재료, 부품, 공정 재고, 완제품, 상품 등을 포함한다. 재고자산 수준은 물가수준이 반영된 명목 가격(current dollars)을 사용한다. 반면, 실질 재고자산 수준은 민간 재고자산의 수준을 2017년 기준으로 물가 변동을 제거한 실질, 즉 물량 기준 재고 수준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격변동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고 재고의 양적 누적을 시점 간 비교할 때 활용된다.

■ 美 생산, 도매, 소매 및 총 재고자산과 실질 재고자산 비교(2020~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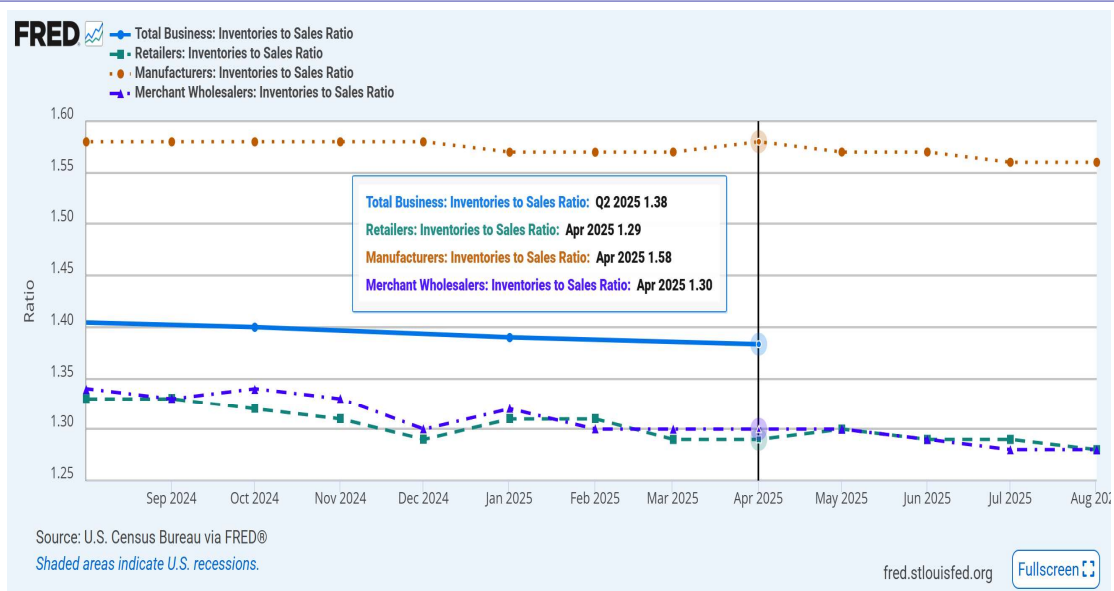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검색일: 2025. 12. 03)



재고/매출 비율(inventories-to-sales ratio)은 월말 재고가 해당 달 매출의 몇 개월 치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요 대비 재고 부담(또는 여유)을 직관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미 상무부 산하 통계조사국(U.S. Census Bureau)이 발표하는 Manufacturing and Trade Inventories and Sales(MTIS)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재고액과 매출액은 계절·영업일(trading day) 차이를 조정하되, 물가(가격) 변동으로는 조정하지 않는 현재 가격(current dollars) 기준이다 (US Census Bureau, 2025). MTIS에서 말하는 총매출액(total business sales)은 유통(distributive trade) 판매액과 제조업체 출하액(manufacturers' shipments)을 합산한 값이다. 2025년 8월 총매출액은 1조 9,509억 달러(= \$1,950.9 billion)로 추산되었고, 이는 2025년 7월 대비 0.2%(±0.1%) 증가, 2024년 8월 대비 4.4%(±0.3%)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총재고액(total business inventories)은 제조업체 재고와 무역(도·소매업) 재고를 합산한 월말 기준값이다. 2025년 8월 말 재고액은 2조 6,637억 달러(\$2,663.7 billion)로 집계되었다. 8월 말 기준 전체 기업(total business)의 재고/매출 비율(inventories-to-sales ratio)은 1.37로, 전년 동월 1.41 대비 0.04 낮아진 수준이고, 2025년 7월 대비 거의 변동이 없으며 (±0.1%) 집계되었다. 5월 이후 이 비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1분기 관세 사전 출고(front-loading)로 재고가 한 차례 유입된 뒤 2분기부터는 판매 속도를 따라갈 만큼 재고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했거나,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수입을 미루는 동안 재고를 소진 모드로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美 산업 부문별 재고/판매율(2024~2025년)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검색일: 2025. 12. 03)



문제는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재고를 줄이는 것이 효율”이 아니라 재고가 부족해지는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연말/신년 소비가 예상보다 꺾이지 않는다면 2025년 3~4분기와 2026년 1분기에는 재고 부족(stockout)이 발생해 기회비용 증가(팔 수 있는데 못 파는 손실)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시나리오가 같린다. 4분기에 부족한 재고를 채우려 수입을 급격히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수입 증가가 GDP 산정에서 감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관세 적용 시점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격 전가(관세분 반영)를 결정하지 못하면, 마진 압박 또는 가격 혼선이 생겨 매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생산 부문에서 재고/매출 비율이 낮아지는 흐름은, 완제품보다 더 치명적인 공정 중단 위기를 부를 수 있는 원/부자재 수급 부족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01 시장 수요 부문의 변화

고관세, 임금 상승, 공급망 압력은 모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는 소비자 단계(Consumer Price Index, CPI)와 생산자·도매 단계(Producer Price Index, PPI)를 함께 봐야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연방정부 셋다운으로 조사가 임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2025-12-15) 기준 최신 CPI는 2025년 9월 자료이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 우선 CPI(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변화를 보여준다. 20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고,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3.0% 상승했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 이는 물가가 내려갔다기보다는, 상승률이 3%대에서 굳어져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11월 CPI는 2025년 12월 18일 발표 예정)

다음으로 PPI(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의 판매 단계(최종 수요)에서 나타나는 가격 변화를 보여주며, 종종 CPI에 앞서 원가/유통 단계 압력을 반영한다. 2025년 9월 최종 수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변동성이 큰 항목을 더 건어낸 “식품·에너지·무역 서비스 제외” 지수는 2.9% 상승으로 집계되었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 즉, 생산 물가 압력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고(특히 운송·창고 등 일부 서비스 항목이 오르는 구간), 기업은 가격 전가(소비자 가격 인상)와 마진 흡수(이익 감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이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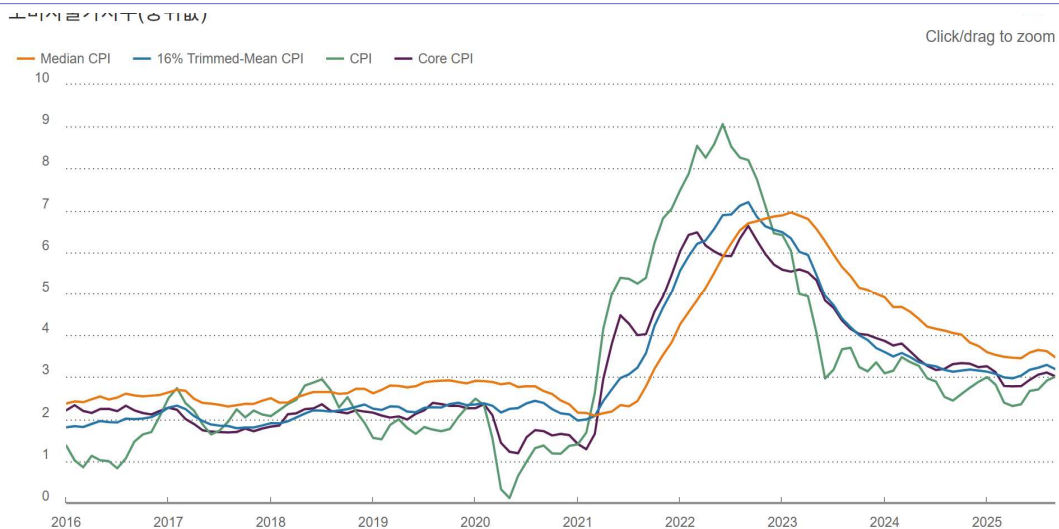
리쇼어링(reshoring)이 “미국 소비자에게 시장가격(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의 전문가들 의견은 대체로 가격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쪽에 가깝다. 공급망을 국내로



더 끌어오면 고임금, 규모의 경제 약화, 중간재 조달 부족 등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OECD는 공급망 지역화(relocalisation)로 큰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에 큰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OECD, 2025). IMF 역시 리쇼어링(reshoring)과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 같은 위험 분산(derisking) 시나리오가 공급망 효율 저하로 인한 영구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4). 따라서 소비자가 얻는 핵심은 ‘가격 할인’보다 품질에 대응하고, 리드타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공급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며, 가계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의 전반적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식품·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포함하므로, 단기 충격에 따라 월별/단기 흐름이 출렁일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기조(underlying) 인플레이션”을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less food and energy)도 함께 제공하며, 이는 변동성이 큰 품목의 영향을 줄여 기조 물가를 가늠하려는 목적에서 널리 활용된다.

■ 美 소비자물가지수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2025)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헤이버 애널리틱스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헤이버 애널리틱스 (검색일: 2025.12.03.)

이와 별개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Cleveland Fed)은 노동청 통계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세부 항목 자료를 활용해 중앙값 소비자물가지수 (Median CPI)를 산출한다. 중앙값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항목들의 월간 물가상승률을 낮은 항목부터 높은 항목까지 정렬한 뒤, 지출 가중치가 ‘가격변동 분포의 50번째 백분위(중앙)’에 해당하는 항목의 월간 상승률을 그 달의 중간 CPI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일시적 급등락 (outlier)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기조 물가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포착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2025).

2025년 9월 기준으로 클리블랜드 연은 중앙값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3.5%로 제시한다. 이는 연준이 장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2%와 비교하면 0.5%p ‘낮은’ 것이 아니라 1.5%p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5년 5월 이후에도 중간 CPI는 대체로 3.5~3.6%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어, 단기간에 뚜렷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림6 참조). 생산자물가지수(PPI)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을 판매하고 받는 가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평균적 변화를 측정한다. PPI에 포함되는 가격은 많은 제품과 일부 서비스의 경우 최초 상업 거래(first commercial transaction) 시점의 가격을 반영한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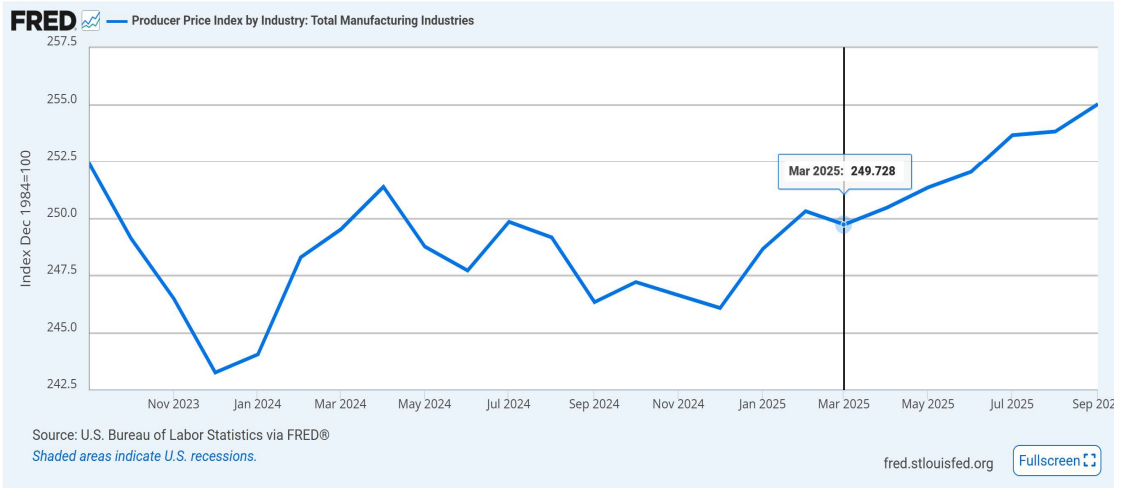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25년 9월 최종수요(final demand) PPI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0.3% 상승했다. 이는 최종수요 재화(final demand goods) 가격이 0.9% 상승한 영향이 컸으며, 최종수요 서비스(final demand services)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 또한 조정 전(unadjusted) 기준으로 2025년 9월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최종수요 가격은 2.7% 상승했다. 같은 기간(2024년 9월~2025년 9월) 세부적으로는 최종수요 재화 가격이 3.3% 상승, 최종수요 서비스 가격이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우려하는 가격 상승 압력은 시장가격과 생산원가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은 완제품의 제조원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출고가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해상 및 내륙 운송비, 그리고 고관세로 인한 수입원가 증가가 겹치면서, 수입품 가격 역시 시장에 상당한 압력을 더하고 있다. 또한 관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선제 선적(front-loading) 이후 수입을 지연하고 과잉 재고를 소진(destocking)하는 전략을 취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 보유비용, 관세 부담, 일시적 운송비 급등 등을 수입, 도·소매업체가 가격에 즉시 전가하지 않고 흡수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흡수 전략”도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결국 시장가격 상승 요인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NR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마크 매튜스(Mark Mathews)도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소매업체들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National Retail Federation, 2025).

그러면 시장 고용 현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는 위축되었을까요? 소비심리가 얼어붙을까요?



美 생산자 가격지수(2023-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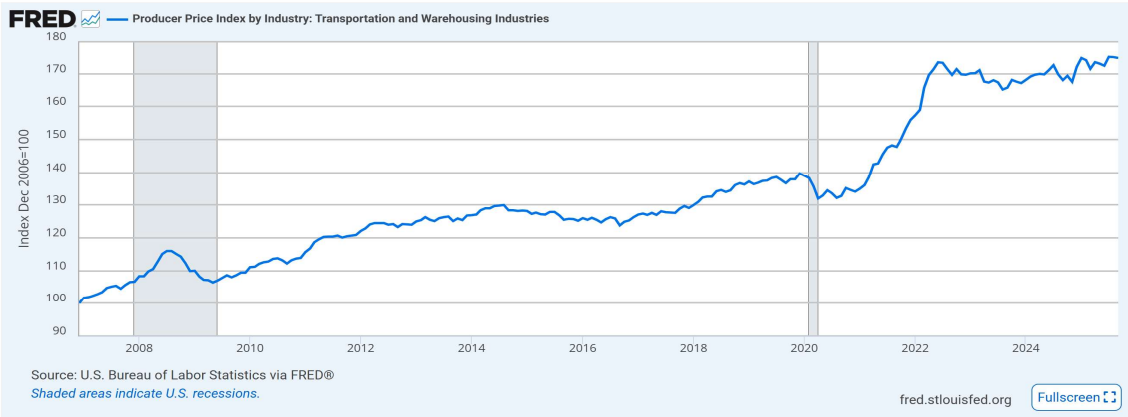
Sep 2025: **174.773**
 Updated: Nov 25, 2025 9:50 AM CST
 Next Release Date: Dec 11, 2025

Index Dec 2006=100,
 Not Seasonally Adjusted

Monthly

1Y | 5Y | 10Y | MAX
 2006-12-01 to 2025-09-01

Download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검색일: 2025. 1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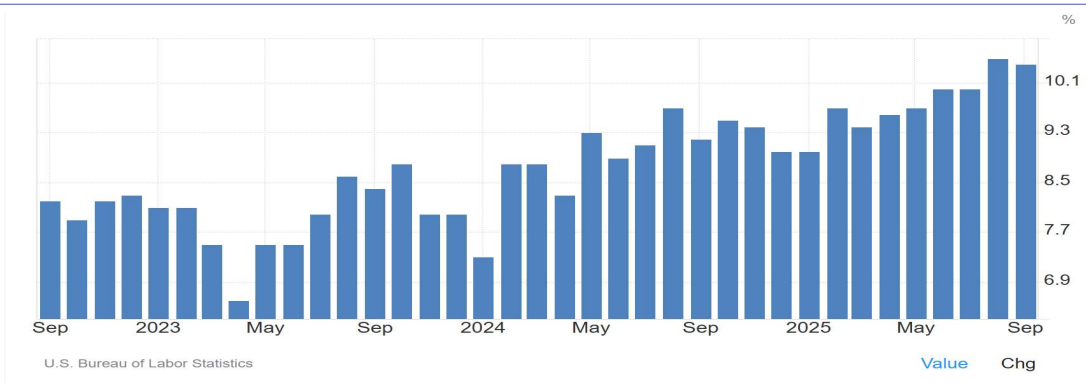
02 고용 부문의 변화

임시직 고용이 줄어든 반면 정규직 고용 수가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임금은 작은 폭으로 오른 반면 실업률도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직률도 2% 이하로 줄었다. 이 사항으로는 청년실업률이 10% 수준으로 업계의 경력직 선호와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인한 신규직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은 2025년 8월 59.6%에서 9월 59.7%로 소폭 상승했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 가계조사 기준으로 보면 9월에는 파트타임(주 35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풀타임(주 35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계절조정 기준: 풀타임 1억 3,448만 명 → 1억 3,515만 명; 파트타임 2,903만 명 → 2,846만 명). 임금은 명목 기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2025년 9월 민간 비농업 부문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9센트(+0.2%) 올라 \$36.67로 집계되었다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 다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real) 임금 흐름은 지표·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노동통계국의 실질 임금 자료에서는 전월 대비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이 보합 또는 소폭 변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률은 8월 4.3%에서 9월 4.4%로 소폭 상승했다. 반대로 9월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다(8월 1억 322만 명 → 9월 1억 297만 명). 이직(자발적 퇴사)과 관련해서는, 퇴직률(quits rate)이 2025년 9월 2.0%였고 10월에는 1.8%로 내려가 2% 아래로 낮아졌다.

청년층 고용 사정은 상대적으로 더 팍팍하다. BLS 기준 16~24세 실업률은 2025년 9월 10.4%로 '10%대' 수준이었고, 10대(16~19세) 실업률은 13.2%로 더 높았다. 이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신규 채용 둔화, AI 도입에 따른 업무 재설계 등과 맞물려 청년층의 진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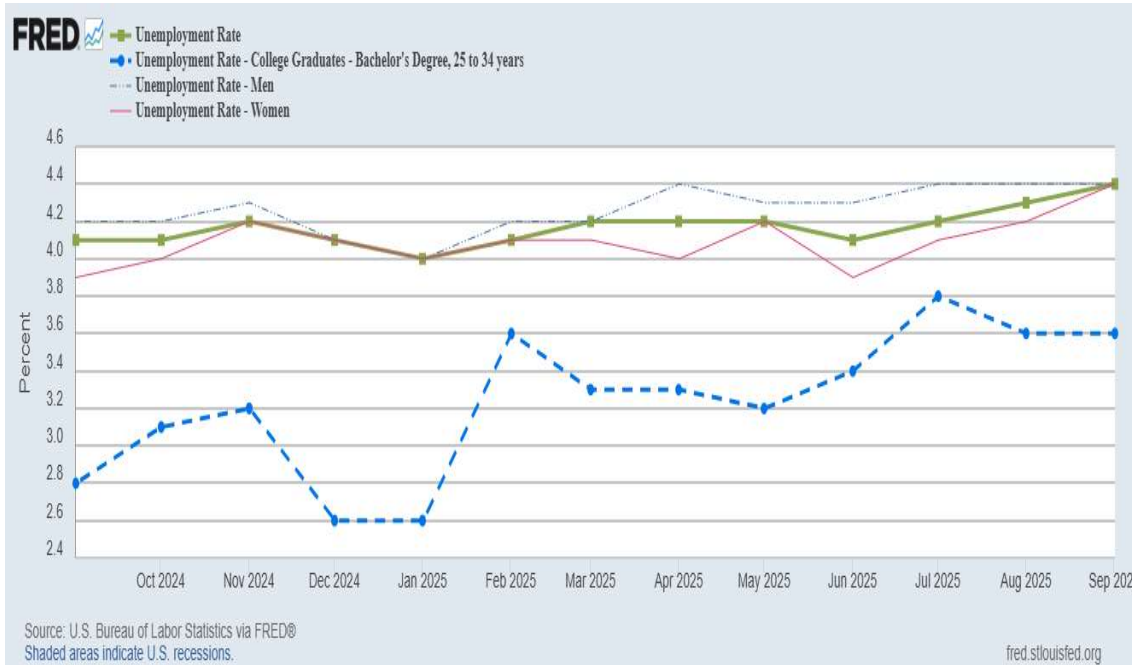
■ 美 청년실업률(미국 연준·BLS 자료, 16~24세 실업률)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검색일: 2025. 12. 03)



■ 美 전체 실업률 및 대학 졸업자(25~34세 기준) 실업률



자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검색일: 2025. 12. 03)

미국 정부는 생산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해 왔지만, 기대만큼 제조업 생산직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공장 현장에서 자동화,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동일한 생산량을 더 적은 인력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신규 고용이 “단순 생산직”보다는 설비 운영, 유지보수, 품질, 데이터/공정 관리 등 고숙련 직무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해외 생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임금, 규모의 경제, 공급망 비용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동화 시스템과 고급 기술·자본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설비투자 이후에도 실제 고용 확대는 고숙련 인력 확보 속도에 좌우되며 단기간에 급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리쇼어링은 “공장을 다시 짓는 것”과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책 효과는 제조업 고용의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향상과 고숙련 일자리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지갑을 열까?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와 가처분 소득(disposable personal income), 개인소비지출(PCE)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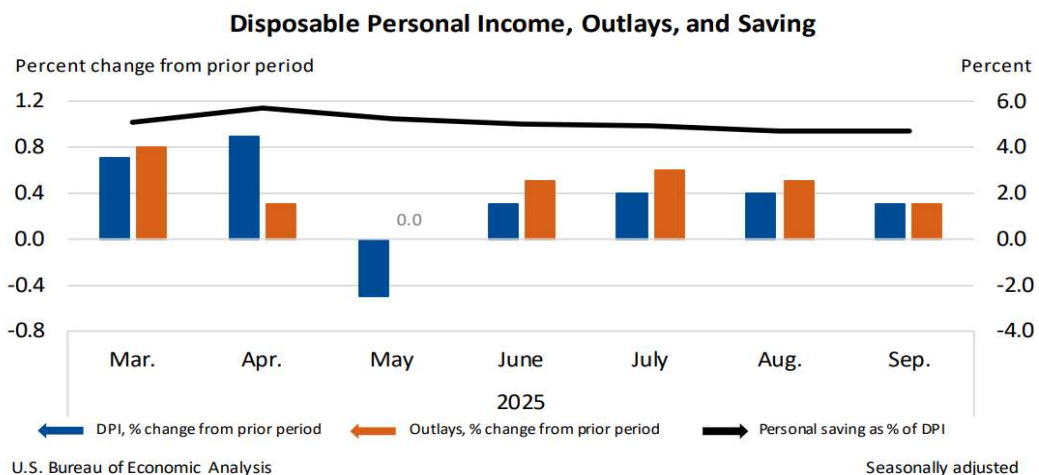


03 소비심리 및 지출 부문의 변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2025년 12월 5일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eptember 2025'를 통해 2025년 9월 가처분 개인소득(DPI)과 소비지출(PCE) 등 관련 지표를 발표했다(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5). 가처분 개인소득(Disposable Personal Income, DPI)은 개인소득에서 개인 경상세 (personal current taxes)를 차감한 소득으로, 가계의 소비, 저축 여력과 경기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변수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소비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가처분 개인소득과 함께 저축률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에는 흐름이 매끈하게 이어지기보다는, 5월에 가처분 개인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6~9월에는 다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진 모습이다.

9월에는 개인 지출(Personal outlays)이 707억 달러 증가했는데, 개인 지출은 개인소비지출(PCE) + 개인 이자 지급 + 개인 경상 이전지출의 합으로 정의된다. 같은 달 개인저축 (personal saving)은 1조 900억 달러 (\$1.09 trillion)였고, 개인 저축률(가처분소득 대비 저축 비율)은 4.7%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은 조금씩 늘지만, 저축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소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해석은 평균적인 흐름을 요약한 것으로, 소득계층·품목별로 소비 여건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NRF 회장 겸 CEO인 매튜 셰이(Matthew Shay)는 2025년 홀리데이 전망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는 신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하며 미국 경제 활동을 계속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National Retail Federation, 2025).

가처분 개인소득 및 저축률(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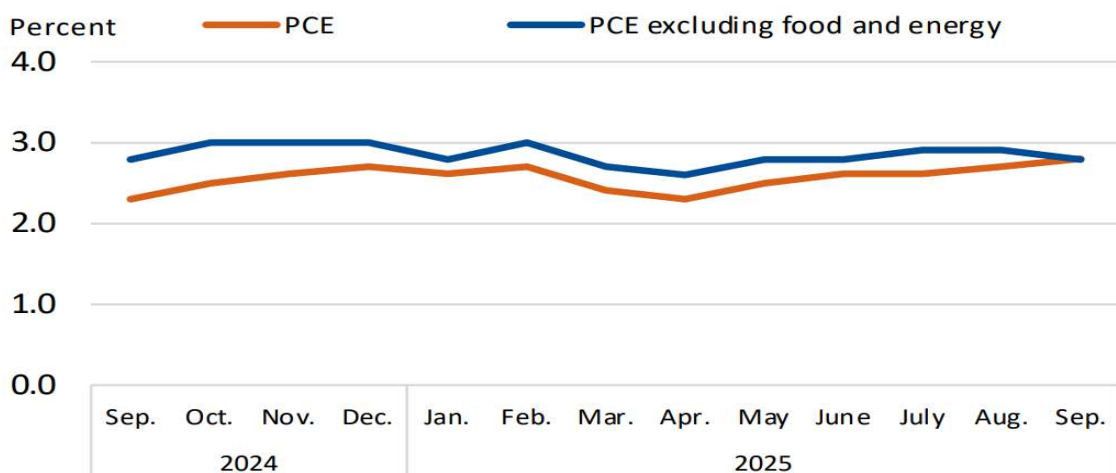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검색일: 2025. 12. 03)



미국 경제분석국(BEA)이 12월 5일, 9월 가처분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의 9월 기준 자료를 배포하였다(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5). 가처분소득(Disposable Personal Income)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뺀 순소득으로 주로 급여 및 자산에 대한 개인소득 수입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 국민경제에서 소비, 저축, 경기 순환을 연결하는 핵심 변수이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경기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처분 개인소득과 저축률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1분기에는 가처분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넉넉해졌다(그림10 참조). 5월에는 세금, 이전 지급 변화, 보너스 기저 효과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가처분소득은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개인 지출 (개인소비지출, 개인 이자 지급액, 개인 경상 이전지출의 합계)은 9월에 707억 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9월 개인저축은 1조 900억 달러였으며, 개인 저축률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저축 비율)은 4.7%였다.

2025년 저축률은 4월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어 '소득은 조금씩 늘어도, 저축을 줄이면서까지 소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즉, 개인 가처분소득은 조금 늘었음에도 저축은 빠지고 있어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 또는 늘어난 소득 이상의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심리 면에서는 신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 활동을 계속 주도하고 있다."라고 NRF의 사장 겸 CEO인 Matthew Shay는 성명에서 말했다. 9월 개인 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3월과 4월에 주춤하며 하락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다시 9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2024~2025)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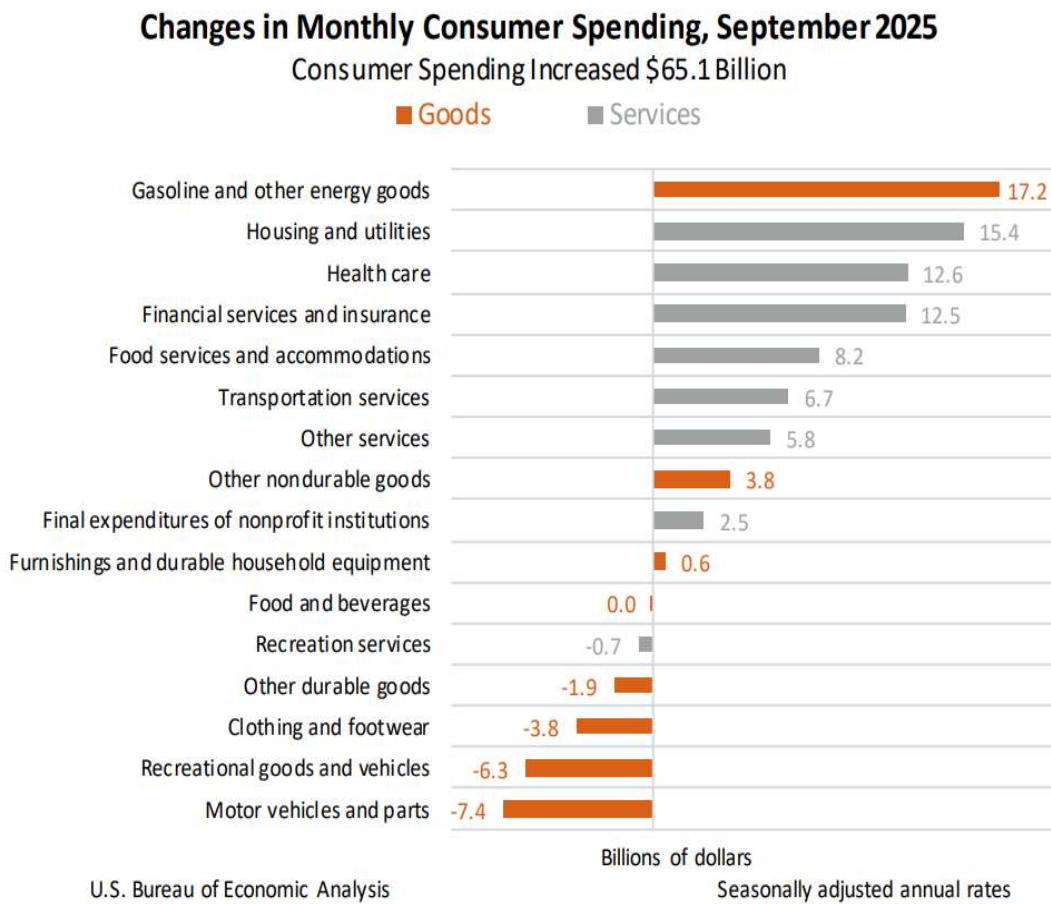
Seasonally adjusted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검색일: 2025. 12. 03)



현재 달러 기준으로 서비스 지출 630억 달러 증가와 상품 지출 21억 달러 증가를 반영한 651억 달러 상당의 개인소비지출을 하였다. 이 지출 중 필수 지출 부분인 에너지, 주택, 의료, 외식 및 숙박, 교통 및 금융 서비스에 대부분 지출하는 반면에 레크레이션, 의류, 자동차 등의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산업별 월별 소비지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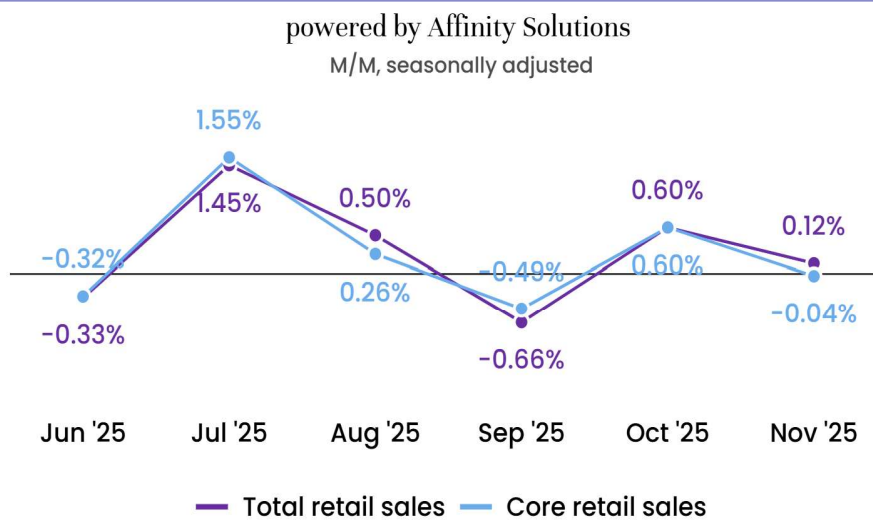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검색일: 2025. 12. 03)

소비자는 지갑을 계속 열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연말 세일 시즌인 11월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성탄절, 새해 등 주요 쇼핑을 유도하는 행사를 끼고 있어 NRF는 매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출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이 침체할 것이라는 여러 예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작년 11월과 12월 4.3% 증가한 9,761억 달러에 비해 지출은 3.7%에서 4.2% 범위에서 1조 100억 달러에서 1조 200억 달러 사이로 증가할 것이라고 NRF는 말했다.



따라서, 소매업체들이 노동 시장 둔화에 따라 265,000명에서 365,000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NRF의 홀리데이 예측은 소비자 지출, 고용, 임금, 전월 소매 판매 발표 등 다양한 주요 경제 지표를 사용한 경제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며, 핵심 소매업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차 딜러, 주유소, 레스토랑 등 특정 카테고리는 제외했다. 리테일 모니터(Retail Monitor)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점과 주유소를 제외한 총 소매판매는 11월에 계절조정 후 전월 대비 0.12% 증가했고, 조정 전 전년 대비 4.53% 증가했다(National Retail Federation, 2025).

■ CNBC/NRF 소매업 모니터링 (National Retail Federation, 2025)



Source: Affinity Solutions, Consumer Purchase Insights

NRF Center
for Retail & Consumer Insights

affinity solutions
CNBC

자료: Affinity Solutions, Consumer Purchase Insight, NRF, CNBC (검색일: 2025. 12. 03)



04 마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입 물가 상승이 예상되었고, 이는 소비자 물가(CPI)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실질 소득이 낮아지면서 소비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소비를 늦추고 저축을 늘릴 것이라는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소비는 고소득층이 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2025).

그러나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3분기까지 가계지출과 개인소비지출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소매협회(NRF)의 집계에서도 11월까지 집계된 연말 명절 시즌 소비가 보험 또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대학교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전월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여 “기분은 나쁘지만 지갑은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관세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민 단속 강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시장 가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환경에서도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마케팅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비는 일정 수준에서 지탱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현재 낮아진 재고 보관 일수와 재고/판매 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재고 보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컨테이너 운송 수요 역시 연초에는 급격히 반등하기보다는, 완만하지만 점진적인 증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